

보도시점 : 2023. 5. 12.(금) 11:00 이후(5. 12.(금) 석간) / 배포 : 2023. 5. 11.(목)

한-일 항공 분야 협력 기반 강화

- 5월 1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'한-일 항공협력회의' 개최
- 코로나-19 이전 수준으로 양국 항공노선 회복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5월 1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“한-일 항공협력회의*”를 개최하여 공노선 회복 및 지방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‘항공분야 협력각서’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.

* 양측 수석대표(韓 : 하동수 항공정책실장, 日 : 오누마 토시유키 국제항공차관보)

○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한·일 정상회담에서 “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노선도 코로나-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가자”라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항공공급력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자 10년 만에 재개되었다.

□ 현재, 한-일 국제선 운항 횟수는 '23년 4월 말 기준, 주 890여회 수준이며 순차적으로 증편을 추진하여 올해 하계 성수기(7~9월) 이후에는 주 1천여회 수준('19년도 운항횟수 대비 약 92% 수준)으로 확대될 전망으로,

○ 7월 이후, 기존 운항중인 인천-삿포르/나고야/간사이 등 노선이 증편되고 청주-간사이/아사히카, 대구-삿포르 노선도 취항이 재개될 계획으로, 양국 대표단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.

□ 양국 대표단은 항공운송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안전, 공항정책 등 항공 분야 전반의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으며, 금번 체결한 ‘항공분야 협력각서’에 따라 항공운송·안전·항행·환경·공항·신기술 등 6개 분야에서 양국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사업도 추진하는 등 양국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홍락 (044-201-4204)
	항공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강혜정 (044-201-4187)

-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은 항공 분야에서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상호이익을 인식하며,
- 항공운송, 항공안전, 항행, 환경보호, 공항정책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 구축에 합의

* 서명 : (韓) 하동수 항공정책실장, (日) 오누마 토시유키 국제항공차관보

1. 항공운송

- 한-일 항공 연결성 강화 및 양국 공항/항공사 간 교류·협력 촉진
- 항공운송 관련 법령/제도, 지방공항 활성화 및 항공사 지원 등 항공운송정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교환

2. 항공안전

- 데이터분석 기반의 항공안전관리체계, 안전보고 제도의 구축현황 및 이행 과정에서의 시사점 등 노하우 공유
- 정비조직 인가의 상호인증 등 양국 간 항공기술 협력

3. 항행

- 항공회랑의 효율적 운영 등 항공교통흐름 및 수용량 개선 협력
-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술 정책 공유

4. 환경 보호

- ICAO CORSIA 및 LTAG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등 준비 현황과 관련 지식을 공유
- 지속가능항공유(SAF) 상용화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네트워킹 강화

5. 공항 정책

- 도서 지역 교통망 확충 및 공항의 건설·운영에 지자체·민간의 참여 등 공항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

6. 신기술

- 드론 등 신 모빌리티 관련 이슈의 논의 및 정책·제도의 개발 협력